

로봇/방산/조선

AI로보틱스/방산/조선/운송 양승윤

6139 / syang0901@eugenefn.com

로봇/방산/조선 8월 리뷰

“ 8월 섹터별 합산 시가총액은 로봇 +13%, 방산 +12%, 조선 -4%를 기록(코스피 +3%/코스닥 +17%). 9월은 수주 모멘텀이 계속되는 방산 업종을 최선호로 제시.

“ [로봇] 정책 모멘텀의 향기

“ 유니트리 상장과 현대차 CID 등 예정됐던 주요 이벤트는 일단락됨. 유니트리는 높은 밸류에이션 부담 속에 상장 이후 주가 흐름이 부진했고, 현대차 CID에서는 기존에 제시되었던 로보틱스 로드맵을 재확인함. 최근 정부의 로봇 정책이 R&D 지원에서 구매·실증·양산 투자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 정부 주도의 초기 수요 창출과 국내 로봇기업의 레퍼런스 확보가 기대됨. 국내 대기업들의 로봇 사업화 움직임도 지속되고 있어 연말~내년까지 관련 공급망에 대한 기대감은 유효할 전망. 9월에는 정부의 로봇 관련 예산안 발표와 22일 Humanoid Summit, 월말 코스닥 상승제 구체안 및 Korea Premium Week에 주목. **로보티즈 관심 종목.**

“ [방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수주 폭발

“ 전월 전망대로 방산 업종에서는 해외 수주 모멘텀이 본격적으로 가시화. 특히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수주 독주가 두드러진 한 달이었음. 미국 자주포 시제사업과 스페인 자주포 수주는 각각 단일 프로젝트를 넘어 후속 물량과 추가 아이템, 신규 시장 진입을 노릴 수 있는 교두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큼. 미국에서도 미사일 재고 확충과 생산능력 확대가 빨라지고 있음. 미사일류 아이템에 대한 관심도 지속 추천. 9월에는 8일부터 폴란드 MSPO가 예정돼 있으며, 폴란드 K2/K-9 EC-3를 비롯한 유럽향 추가 수주 모멘텀 부각을 기대함. **한화에어로스페이스 Top-pick(BUY/TP 186만원).**

“ [조선] 호재에도 움직이지 않는 주가

“ 8월은 HD현대중공업의 대규모 DC항 발전엔진 수주와 백악관의 해외 함정 건조 허용 방침에도 불구하고 조선업종의 주가 흐름은 다소 부진. 조선사의 본업인 상선 부문에서 중국 대비 신규 수주가 부진했고, DC항 엔진의 장기 수요에 대해서도 시장의 확신이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 미 군함 해외 건조 역시 실제 계약을 위해서는 의회의 예산 승인이 필요하며, 허용 범위가 초기 2척에 그친다는 점에서 제도 변화의 실질적 효과를 냉정하게 평가한 것으로 보임. 향후 엔진 부문은 증설 결정 여부가 사측의 장기 수요 확신을 가능할 핵심 지표가 될 것으로 전망. 미 군함은 해외 건조에 대한 의회의 전향적인 입장과 실제 예산 반영 여부를 우선적으로 확인할 필요. **HD현대중공업 Top-pick(BUY/100만원).**

업종투자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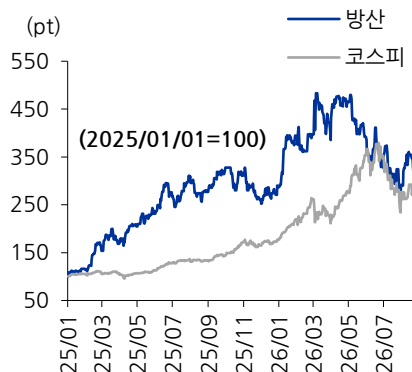
OVERWEIGHT

로봇 업종 시가총액 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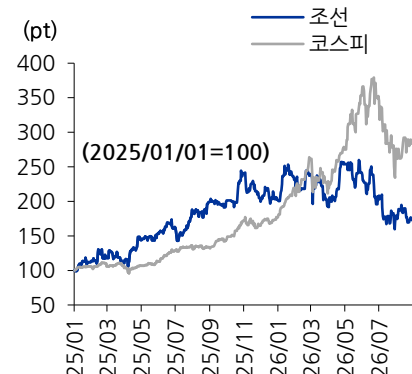
자료: Quantwise, 유진투자증권

로봇 업종 시가총액 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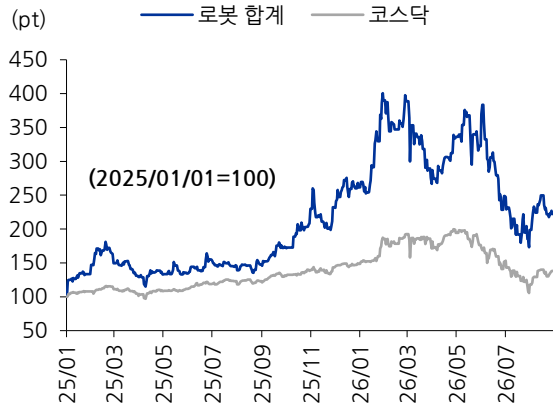
자료: Quantwise, 유진투자증권

로봇 업종 시가총액 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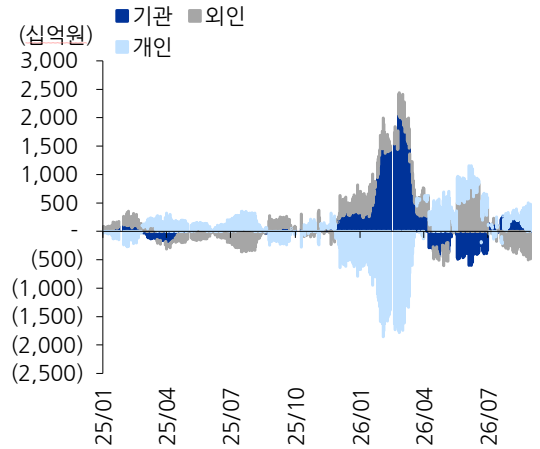
자료: Quantwise, 유진투자증권

로봇 업종 시가총액 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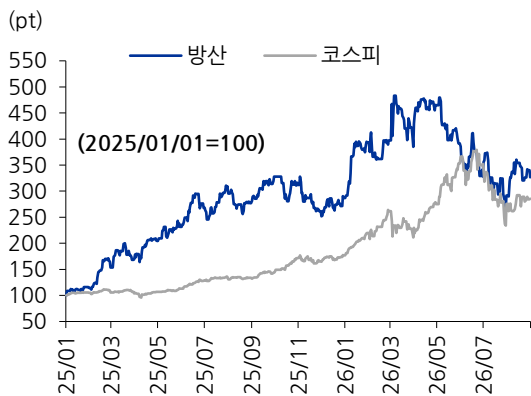
자료: Quantivise, 유진투자증권

투자자별 누적 순매수 동향(로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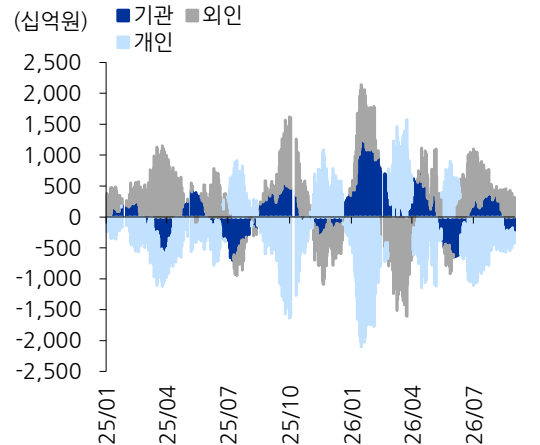
자료: Quantivise, 유진투자증권

방산 업종 시가총액 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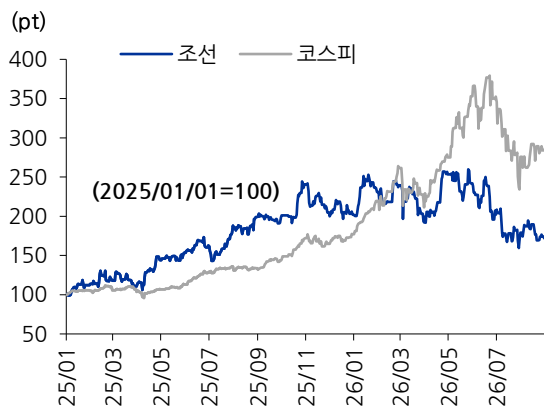
자료: Quantivise, 유진투자증권

투자자별 누적 순매수 동향(방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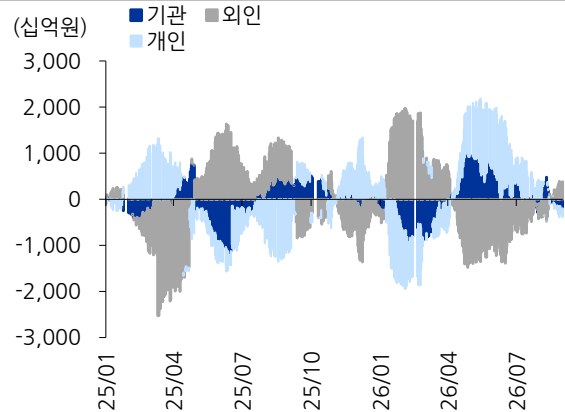
자료: Quantivise, 유진투자증권

조선 업종 시가총액 지수 추이



자료: 유진투자증권

투자자별 누적 순매수 동향(조선)



자료: 유진투자증권

8월 로봇 주요 이슈

주요 이슈	상세	임플리케이션
현대차, Atlas 공급망·훈련 인프라 구축	- 현대차 1차 협력사 약 200 곳이 휴머노이드 소재·부품 사업계획서 제출 - 보스턴다이나믹스가 국내 부품사를 약 2개월간 실사하고 4분기 공급업체 선정 추진 - 조지아 RMAC 을 연말까지 10배 확대하고 제조용 로봇 데이터 수집·검증 강화 2028년 HMGMA에 Atlas를 배치하는 일정 재확인	부품 공급망 검증과 현장 데이터 확보 단계로 진전
삼성·LG의 로봇 사업화	- 삼성 RX 사업추진실이 경영진 대상 휴머노이드 손 조작 데모 진행 - 삼성의 가전 모터 기술 기반 로봇 액추에이터 자체개발 보도 - LG·엔비디아가 휴머노이드 협력을 추진하고 2027년 1분기 차세대 모델 공개 목표 제시 - LG 양재 데이터팩토리는 연말까지 10만 시간 이상의 로봇 학습데이터 확보 목표	대기업 경쟁력이 조직 신설에서 시제품·부품·AI 학습데이터 확보로 전환
핵심부품 공급계약	- 에스비비테크가 국내 로봇 제조사와 19.2억원 규모 휴머노이드용 정밀감속기 계약 체결 - 한라케스트의 미국 빅테크향 로봇부품 추가 수주가 보도됐으나 고객사금액은 비공개 - 한국피아이엠은 초소형 감속기 개발 후 북미 휴머노이드 기업과 공급 협의 - 알에스오토메이션은 53.7억원 규모 표준 구동플랫폼 국책과제 선정	국내 부품사 수주 계약 확대
외형 성장에도 업종 수익성은 부진	- 국내 로봇 관련 상장사 36곳의 상반기 합산 매출은 1조 2,905억원으로 +9.8%yoy 증가 - 합산 영업손실은 1,116억원에서 1,343억원으로 확대	실적 호조/부진 기업의 차별화
정부 정책, 구매·실증·투자 패키지로 확대	2027년 6,000억원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휴머노이드 생태계에 2.3조원 투자 8대 분야 피지컬 AI 실증에 2030년까지 2.8조원 투자 - 국산 휴머노이드 2027년 250대, 2030년까지 누적 1,080대 공공구매 - 非휴머노이드 포함 정부 구매는 2030년까지 약 5,000대로 확대 - 핵심부품 국산화율 45%→80%, 10대 업종별 양산체계 구축 목표	정책 중심이 R&D에서 초기 구매·현장 실증·양산 지원으로 확대
국민성장펀드, 로봇 양산설비 투자 개시	- 원익로보틱스의 로봇핸드 생산공장 AX센터 건설을 위한 총 3,500억원 조달안 승인 - 첨단전략산업기금 1,500억원 직접투자자와 민간자금 2,000억원으로 구성 - 로봇핸드 양산과 핵심부품 내재화, 자율이동조작로봇 사업 확대 추진	정책금융이 연구개발을 넘어 실제 생산설비 투자로 연결
중국, 생산 규모와 제품 경쟁 확대	- 상반기 글로벌 휴머노이드 출하량 약 1만 9,100대, 중국 기업 비중 97% 이상으로 추정 - 애지봇 8,400대·유니트리 5,900대로 두 기업이 약 75% 점유한 것으로 추정 - 유니트리는 누적 휴머노이드 출하량 약 1만 8,000대를 발표 - WRC 2026에 300개 이상 기업이 참가하고 150개 이상 신제품 공개	휴머노이드 시장 내 중국의 압도적인 시장 경쟁력 유지
유니트리 상장, 기대와 과열	- 유니트리가 8월 19일 상하이 커황반에 상장 - 상장 첫날 주가가 공모가 대비 460% 상승했으나 이후 급격한 가격 조정 발생 - 중국 계획당국은 휴머노이드 분야의 무분별한 추종·중복투자 가능성을 경고	중국 내 휴머노이드 공급과잉과 가격경쟁 심화 가능성에 유의

자료: 유진투자증권

8월 방산 주요 이슈

주요 이슈	상세	임플리케이션
한화, 미국 자주포 시장 ·시제품 단계 진입	- 미 육군, 한화디펜스 USA와 MTC 시제품 개발계약 체결 - K9 기반 차륜형 자주포 6문과 옵션 12문 등 최대 18문을 개발·시험 - 최초 계약금액 1억 30만달러, 옵션 포함 누적 2억 6,290만달러 - 시험기간은 약 4년이며 성능·신뢰성·경비성 및 운용시험 진행	미국 지상무기 시장 진입을 위한 첫 주요 레퍼런스 확보
한화, 스페인 자주포 수주	- 스페인 인드라시스템즈와 자주포 수출 실행계약 체결 - 케도형 자주포 128문 + 탄약운반차 128대 + 구난차 21대 등 포함 - 인드라는 K9 계열을 기반으로 스페인에서 자체 차체를 설계·생산, 설계권한까지 확보	K-9 자주포 서유럽 첫 진출
폴란드 항 납품 ·현지생산·MRO 확대	- K2 2차 실행계약 180대 중 첫 28대 인수 확인 - 현대로템, K2 창정비 역량과 부품 생태계의 폴란드 이전 추진 - 폴란드 대표단이 K9 3차 실행계약과 K9A2 현지생산·모듈화 장악 협력을 논의	완제품 수출에서 현지생산·정비·탄약으로 수익구조 장기화
수출 파이프라인 ·확대 지속	- 페루 육군이 K2를 전차 도입사업 우선추천 기종으로 평가했으나 본계약은 미체결 - 필리핀 천궁-II가 최종 후보로 거론됐으나 기종선정·계약은 미확정 - 리투아니아와 저고도 방공·대드론 및 현지생산 협력 논의(K-30 비호복합) - 인도네시아 UG 함대공유도탄-II 도입 검토 - 말레이시아, 남중국해 압박에 KF-21 36대 조기 도입 추진 - 한국·쿠웨이트 외교부 회담에서 천궁 등 방산 협력 논의 - 한국·이라크는 2024년 체결한 천궁-II 계약의 자금조달·재정절차 협의 - 방사청은 국내기업의 NATO 표준 신청·제공 절차를 담은 관리지침 제정	- 수출 지역과 품목이 유럽·동남아·중동·남미의 방공·지상체계로 다변화 - NATO 표준 접근성 개선으로 인증·시험 및 공동개발 진입장벽 완화 기대
KF-21, 전력화 ·국산 무장 개발 진입	- KF-21 양산 1호기 9월 17일 공군 인도, 연말까지 8대 인도 예정 - 장거리공대공 유도탄 사업은 10월 우선순위 선정, 12월 계약 목표 - 국산 초음속 공대지 미사일은 10·12월 FA-50 탑재 시험 후 2027년 전력화	국산 전투기 사업이 기체 양산에서 공대공·공대지 무장 패키지로 확장
무인체계, 실제 군 구매 ·시험운용 확대	- 육군 교육용 상용드론 총 1만 1,376대 구매계약 진행 - 에이릭스가 교육용 드론 공급계약 체결 - 요격 드론 업체 니어스랩 코스닥 시장 IPO - 자폭용 무인수상정과 광섬유 자폭드론이 신속시범 사업 후보로 선정 - 한화 아리온스멧은 다목적무인차량 기종 선정 후 9월 양산계약 추진	무인체계 정책이 연구개발·시연에서 군 구매와 시험운용으로 전환
한화의 KAI 인수 ·미국 투자	- 한화그룹이 KAI 지분 15.89%를 확보하고 기업결합심사 신청 -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미국 자회사 유상증자에 4,150억원 출자	한화의 항공우주 분야 수직계열화와 미국 현지사업 투자 확대 흐름
미국 미사일 재고 보충 ·대량조달 확대	- 미 국방부, PAC-3 THAAD 핵심부품 생산 확대를 위한 장기협약 추진 - 미 해군, 레이시온과 7년·229억달러 규모 토마호크 계약 체결 - 미 육군, 2028~2034년 GMLRS 13만발 생산능력 확보를 위한 업계 의견요청 - X-Bow와 저가형 요격체계 개발·비행시험 계약 - 연간 최대 8,000발의 신형 단거리 미사일 생산 가능성 조사	- 재고 소진 대응이 단기 주문에서 장기계약 확대로 전환 - 고가 요격탄 증산과 저가대량생산형 무기 확보를 병행

자료: 유진투자증권

8월 조선 주요 이슈

주요 이슈	상세	임플리케이션
신규 수주	- 삼성중공업, 수에즈막스 원유운반선 2 척 2,680 억원 건조계약 - 삼성중공업, 컨테이너선 2 척 4,445 억원 건조 계약 - HD 현대중공업, 오세아니아 선사와 대형 LPG 운반선 4 척 5,154 억원 건조계약 - 한화오션, 여수 490MW LNG 집단에너지 EPC 5,279 억원 계약	신규 수주 흐름은 지속
AIDC 발전엔진 ·FDC 사업 구체화	- HD 현대중공업, 미국 코반에너지와 1,000MW 9,560 억원 발전설비 공급계약 - 삼성중공업, 미국 M3와 50MW 급 FDC 기본-상세-생산설계 엔지니어링 계약 - HD 현대중공업, 데이터센터 수요 대응을 위한 엔진공장 증설 검토 - 한화엔진, 창원에 4행정 중속엔진 전용공장 준공	- 발전엔진은 대규모 공급계약 체결 - FDC는 설계계약으로 진전
미국, 조건부 합정 해외건조 허용	- 미국 조선소에 대규모·지속적으로 투자하는 외국 조선사에 최대 2 척의 해외 건조 허용 - 후속 합정은 미국 조선소에서 건조하고 미국인력 양성·기술이전·현지 공급망 구축을 요구 - 향후 90 일 내 대상 합정과 조달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 - 미 의회 일부에서는 해외건조에 대한 반대 지속	한국 조선소의 미 해군 합정 직접건조 가능성 구체화
미국 현지 조선소 확보 경쟁	- 한화가 오스탈 USA에 10.5억~12 억달러 규모 조건부·비구속적 인수안 제시 후 실사 착수 - 한화가 미국 조선투자용 지주회사 설립 - HD 한국조선해양이 미국 투자법인을 설립하고 현지투자 검토 - HD 현대중공업은 미국 서남부 조선소 2~3 곳을 검토 중이나 인수대상은 미확정	- 미국 조선소 보유·투자가 미 해군 신조시 장 진입의 핵심 조건으로 부상 - 한화는 실사·본계약규제승인, HD 현대는 후보지 선정 이전 단계
미국 조선·합정 공급망 실행 진전	- HD 현대, HII 잉겔스 조선소에 지능형 용접시스템 시범사업 착수 - 한화필리조선소·한화디펜스 USA, 미 해군 LSM 산업설명회에 참여해 공급망 진입 추진 - HD 현대, 중대형 무인수상정을 2027 년 초 미국에서 시연할 계획 - 한화필리조선소, 기존 계약분 NSMV 4 호선 인도	MOU 중심의 협력이 현장 시범사업·납품·자격검증으로 진전
페루 현지건조 성과 ·후속수출 추진 + 태국·필리핀 호위함	- HD 현대중공업·SIMA, 페루 상륙지원함 1 번함 '침보테함' 현지 진수 2 번함 '탈라라함'도 육상 건조공정을 완료 - 페루 잠수함은 연말 상세설계·건조계약 목표 - 태국, 필리핀 호위함 수주 가능성도 고조	설계·기자재·기술지원과 현지건조를 결합한 수출모델의 실적 확인
중국, 고부가 선종 수주 확대	- 완하이라인 중형 컨테이너선 물량을 중국 조선소가 확보 - 레이카캐리어스의 10 억달러 이상 PCTC 후속물량은 중국 GSI와 협상 진행 - ADNOC L&S가 중국 장난조선에 LNG 선 2 척 옵션 행사	- 중국의 경쟁 범위가 컨테이너선·PCTC 에서 LNG 선까지 확대 - 국내 조선사의 제한된 슬롯과 중국의 가격납기 경쟁력이 영향
노사 리스크 재부각	HD 현대중공업 노조가 9 월 2 일부터 단계적 부분파업 일정 확정	교섭결과와 파업 확대 여부에 따른 공정 영향 추적 필요

자료: 유진투자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자료 작성일 기준으로 지난 3 개월 간 해당종목에 대해서 유가증권 발행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을 기준으로 해당종목의 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조사분석담당자는 자료작성일 현재 동 종목과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조사분석담당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제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투자기간 및 투자등급/투자의견 비율

종목추천 및 업종추천 투자기간: 12 개월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추천종목의 예상 목표수익률을 의미함)

당사 투자의견 비율(%)

· STRONG BUY(매수)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50%이상	3%
· BUY(매수)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5%이상 ~ +50%미만	94%
· HOLD(중립)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0%이상 ~ +15%미만	3%
· REDUCE(매도)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0%미만	0%

(2026.06.30 기준)

